

학업중단 청소년 우울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또래애착의 매개효과 검증

김년희*

*계명대학교 BK21플러스 지역사회통합인재양성사업단

e-mail:younhee7108@hanmail.net

The Effects of Depression on Self-Esteem Among School Dropout Adolescents: An Analysis of the Mediating Effect of Peer Attachment

Nyeon Hui Kim*

*BK21PLUS Training Center for Social Integration Expert,
Keimyung University

요약

청소년들은 현대사회 다양한 스트레스인 학업, 가족·교우관계, 및 취업에 대한 어려움을 갖게 되는데 이때 우울을 동반하게 되며 이로 인해 자아존중감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관한 연구들에서는 일반청소년들의 우울과 자아존중감 등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특히 학업중단 청소년의 경우 일반청소년에 비해 우울과 자아존중감에 더욱 심각한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다고 한다. 현재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해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일반청소년들의 학교 중도 이탈을 막는데 집중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우울로 인해 자아존중감이 낮아진 것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보호요인에 대해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우울은 자아존중감을 낮추는 데 이때 보호요인으로 또래애착 영향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학업중단 청소년의 우울, 자아존중감, 또래애착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 우울과 자아존중감에 대한 또래애착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5차년도(2017) 데이터를 활용하여 결측치를 제외한 학업중단 청소년 315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하였다. 자료는 SPSS WIN v21.0을 활용하여 기술통계, 상관관계 분석, 매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업중단 청소년의 우울, 자아존중감, 또래애착 간에 정적 혹은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중단 청소년의 우울은 또래애착, 자아존중감의 모두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애착의 경우 자아존중감에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학업중단 청소년의 우울, 자아존중감 및 또래애착 간에는 정적 및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 1)은 지지되었다. 둘째, 학업중단 청소년의 우울과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에서 또래애착의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과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에서 또래애착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우울과 자아존중감에 대한 β 값은 $-.446$ 로 부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우울과 또래애착의 β 값은 $-.337$ 로 부적으로 유의하였다. 여기서 또래애착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줄 때의 β 값은 $.258$ 로 정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또래애착은 우울과 자아존중감에 대해서 정적으로 매개됨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학업중단 청소년의 우울과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에서 또래애착은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라는 가설 2)도 지지되었다. 본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또래애착을 향상시켜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는 실천 및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